바다분수·생생문화제… 목포관광 활기 찾았다

관광지 북적이고 숙박업소 만원 행렬 이어져
해상W쇼·로맨틱선샤인 등 체류형 관광 기대

목포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된 뒤 대반동 유원지와 평화광장, 고하도, 삼학도 등 목포의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숙박업소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목포관광은 외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목포는 춤추는 바다분수, 고하도 해상데크 등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또 역사, 문화,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는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로맨틱 선샤인'도 지난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관광객 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인 춘화당에서 '동물원으로 가족 나들이'란 주제로 시작된 클래식 공연인 '한옥인문학콘서트', 매주 토요일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생생문화제',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목포건맥1897협동조합의 '토야호' 등이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며 관광객 방문을 유인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는 코로나19 기간에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려온 시의 노력도 주효한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미디어마케팅을 통한 목포 알리기에 매진하면서 인기 드라마인 '우리들의 블루스'와 웹드라마 '파친코', 예능 프로그램인 '고두심이 좋아서', '한번쯤 멈출 수 밖에' 등의 목포 촬영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인지도를 높였다.

목포 관광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공연할 야간 관광상품인 '해상W쇼'가 체류형 관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이 활기를 찾고 있다. 생생문화제 거리 공연. 〈목포시 제공〉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가 운행되는 '로맨틱 선샤인'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관광객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을 모으고, 관광객이 하루만 즐기고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북항 서남권수산물종합지원단지.

목포수협, 북항시대 연다

28일 서남권수산물종합단지 이전

목포수협이 80여년의 선창시대를 뒤로하고 북항으로 이전한다.

목포수협은 북항 서남권수산물종합지원단지로 오는 28일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수산물종합단지는 총 사업비 379억원을 투입해 북항부지 내 연면적 1만4000여㎡,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지난 2017년 11월 10일 착공해 3년 여의 공사 끝에 준공됐다.

1단계 사업으로 선어·새우젓 위판장, 냉동·냉장공장, 유류보급소 및 판매장, 사무실, 연쇄점, 기타 어업인 편익시설 등이 들어섰다.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위판장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완공 후 전체 업무기능 이전 준공식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목포수협은 이번 사무실 이전을 시작으로 부족시설 보완 후 위판장까지 이전하게 되면 목포수협은 수산물 선도유지와 유통시설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수산물 관련시설의 집적화, 단지화를 통해 물류비용 등을 절감해 수산식품 생산의 거점단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는 해양관광, 수산물가공·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목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지에서부터 수산물 유통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민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진도군이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단됐던 ▲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마을로 찾아가는 노인 우울증 검사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생명사랑교육 ▲관공서 및 직장인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재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우울증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실태조사와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 상담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540-6940)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도 실시되니 진료가 필요한 군민은 보건소로 문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영광 모악보건소~불갑사 삼거리 6월부터 3개월간 차량 통제

영광군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교량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을 전면통제한다고 밝혔다.

차량 통제구간은 불갑 농어촌도로 209호선인 불갑면 모악리 모악보건진료소 삼거리에서부터 불갑사지구 관광지 식당가 아래 삼거리까지다.

우회로는 2개노선으로 첫 번째 노선은 방마오거리 회전교차로→단산마을→불갑사·불갑산(불갑농어촌도로 208호선), 두 번째 노선은 불갑테마공원→모악보건진료소 → 연실교 → 단산마을 → 불갑사·불갑산(불갑농어촌도로 209호선→ 208호선)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그 대상으로,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과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완도군의 착한 임대인은 9명으로, 임차인 22명에게 임대료 6290만원을 인하했다.

완도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임차인 132명에게 임대료 2억1000만원을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34명의 지방세 2000만원을 감액했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항목 해남군, 463종으로 확대

해남군은 오는 6월부터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의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해남군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성분을 자체 검증하고 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보호와 푸드플랜 정책 안전성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농산물 판매확대는 물론 농약잔류로 인한 농산물 폐기 등 농업인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잔류농약 분석서비스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분석의뢰가 가능하며, 곡류, 채소, 기타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한다.

시료는 곡류의 경우 1~3㎏, 과실류 3~5㎏, 인삼 등 고가 작물은 500g을 오염이 안 되도록 밀봉 후 채취 당일 접수해야 한다.

접수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안전성분석센터로 방문 접수해야하며, 결과는 20일이내 방문수령 또는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